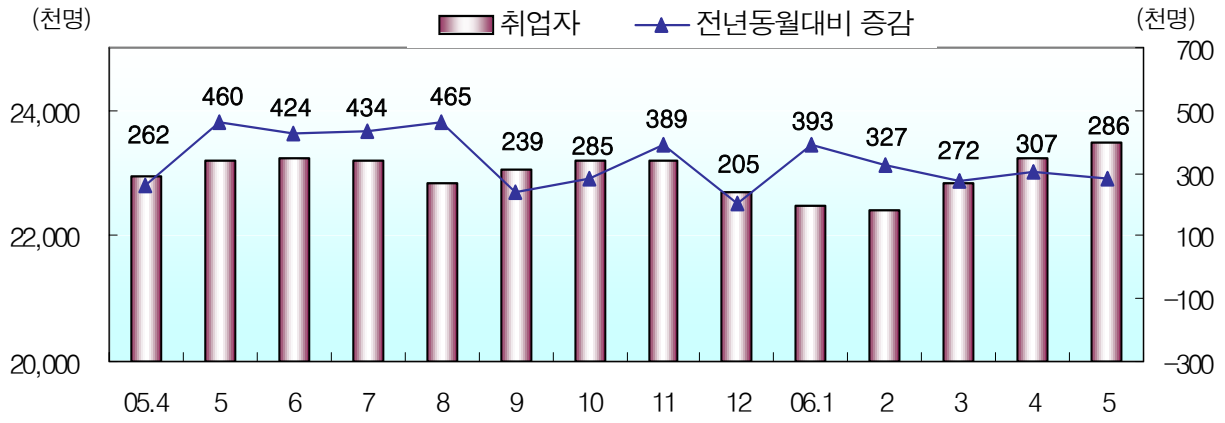
비경제활동인구 증가 요인 및 특징 분석

◇ 전반적인 고용동향의 안정 추세에도 불구하고 비경제활동 인구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체감 고용경기의 회복은 더디다는 일부의 지적이 있어 이를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정리·보고 드림

1. 최근 고용동향

□ '06년 5월 현재 실업률 3.2%(783천명, 전년 대비 0.3%p 감소), 취업자 286천명 증가(증가율 1.2%), 고용률 60.6%(전년 同) 등 전반적 안정세 유지

< 취업자 수 및 전년동월대비 증감 >



(단위 : 천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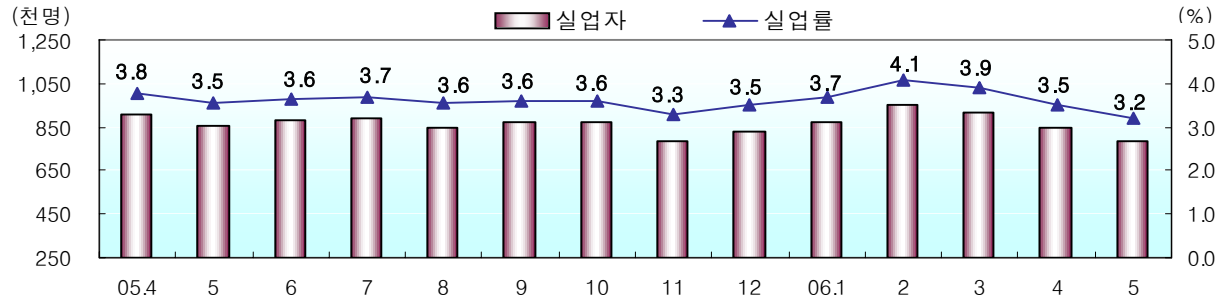
	'05.4	'05.5	'05.11	'05.12	'06.1	'06.2	'06.3	'06.4	'06.5
취업자수	22,934	23,199	23,191	22,699	22,471	22,412	22,848	23,242	23,484
(전년동월비)	(1.2)	(2.0)	(1.7)	(0.9)	(1.8)	(1.5)	(1.2)	(1.3)	(1.2)
고용률	60.1	60.6	60.3	59.0	58.3	58.1	59.1	60.1	60.6
고용률(15~64세)	63.9	64.4	64.3	63.4	62.9	62.6	63.4	64.1	64.6

o 제조업,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등의 고용회복 부진이 이어지고 있지만 서비스업의 취업증가세는 뚜렷함

- 제조업(-79천명), 도소매·음식숙박업(-11천명),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337천명), 전기·운수·통신·금융업(93천명) 등

o 실업률 3.2%는 2002년 3.2%를 기록한 이후 **4년 만에 최저치**

< 실업자 및 실업률 추이 >



2. 비경제활동인구 증가실태 분석

□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경제활동인구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노동시장 활력이 저하되고 체감 경기를 낮춘다는 지적

< 고용관련 주요 개념 체계 >

- 15세 이상 인구 (생산가능인구)
  - 경제활동인구
    - 취업자
      -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자
      - 18시간 이상 일한 무급가족종사자
      - 일시휴직자
    - 실업자
      - 신규실업자
      - 전직실업자
  - 비경제활동인구
    - 일할 의사가 없거나 일할 능력이 없는 자(가정주부, 학생, 연로자 등)

*** 비경제활동인구의 고용정책적 함의**

① 실업률 저하만으로는 고령화 문제 해결이 불가능, 생산가능인구의 적극적인 노동시장 참여가 없는 한 복지에 의존한 인구가 지속 불가능할 정도로 증가

② 비경활 인구 상당수는 여건만 조성된다면 일할 의욕이 있으므로 이를 충족시킬 다양한 정책 활용 여지(근로인센티브를 높이고 개인의 선택권 보장)

③ 비고용급여[1](예: 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가 실질적인 취업장애를 겪는 사람들에게 한정되지 않고 강한 취업의무를 부과하지 않는다면 실업급여나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통한 고용확대 효과가 미미(비고용급여로 회피 경향)

o '06년(5월까지) 비경제활동인구수는 14,873천명으로 '00년 이후 최대이고 생산가능인구 중 차지하는 비중도 다시 늘고 있음

< 비경제활동인구 추이 >

(단위 : 천명, %)

구 분	00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1~5월)
비경제활동인구(비중)	14,052(38.8)	14,108(38.6)	14,042(38)	14,383(38.5)	14,300(37.9)	14,557(38)	14,873(38.5)
(전년대비 증감)	-	(56)	(△66)	(341)	(△83)	(257)	(286)

1) 비고용급여는 근로연령에 속하면서 장애, 육아, 고령, 사회부조 등을 이유로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않는 개인에게 지급되는 모든 소득-대체 급여를 말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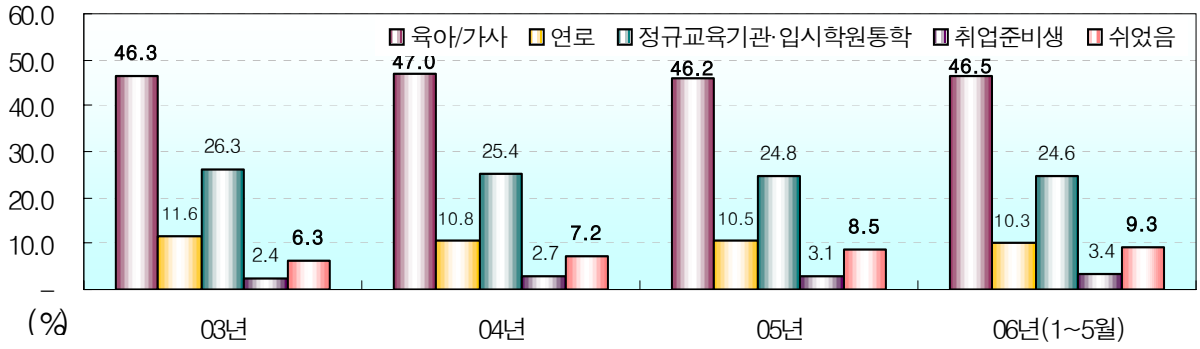
□ 주요 특징

① 활동 유형별

o 비경제활동인구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유형은 육아/가사(46.5%)이며, 통학(24.6%), 연로(10.3%), 쉬었음(9.3%), 취업준비생(3.4%)등의 순임

- 최근, 아무런 활동 없이 "쉬었음" 및 취업준비생 이라고 답한 사람의 비중이 지속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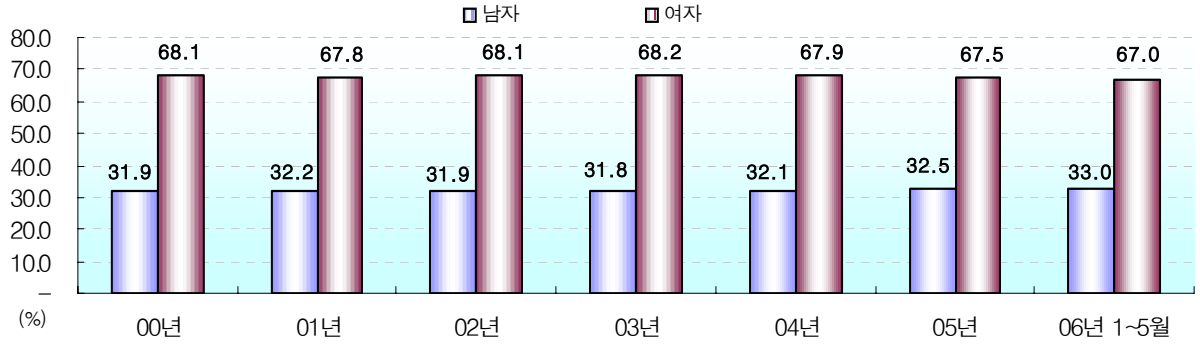
< 비경제활동인구 활동상태별 비중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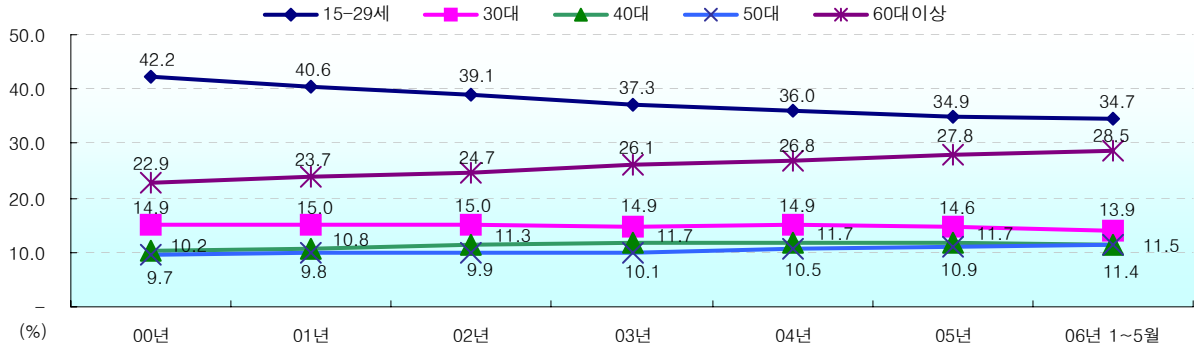
② 성별 · 연령별 · 학력별

o 여성 비중이 소폭 증가하고 있으며, 40대 · 50대 · 60대 등 중 · 고령자의 비중도 지속적인 증가 추세

< 비경제활동인구의 성별 비중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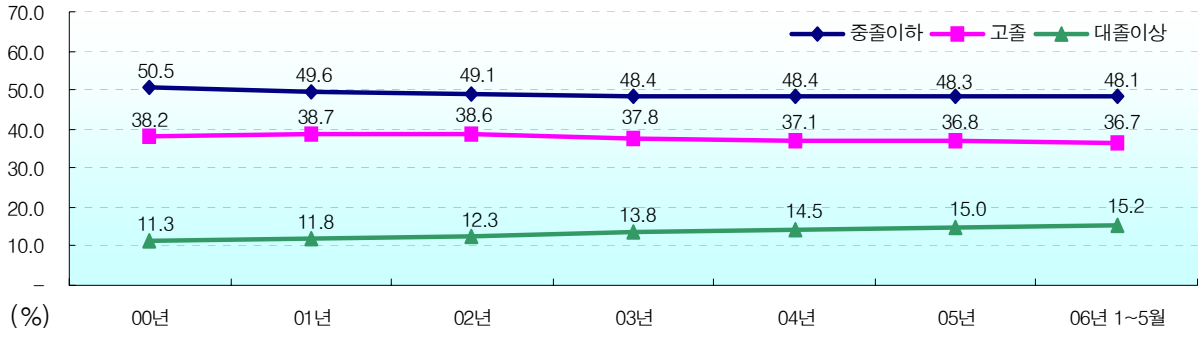


< 비경제활동인구의 연령별 비중 추이 >



o 대졸이상 고학력 비중이 가장 빠르게 증가

< 비경제활동인구의 학력별 비중 추이 >



③ 1년 미만 전직 비경활 인구

o 現 비경제활동인구이나 1년 이내에 직장을 다니고 있었던 자는 '06.5월 현재 271만명으로 지속적인 감소 추세

< 1년 미만 전직 비경활 인구 추이 >

	'00	'01	'02	'03	'04	'05	'06.5
1년미만 전직 비경활인구(천명)	3,322	3,242	3,200	2,935	3,251	3,040	2,711

□ 분석

o 고용율의 정체 속에서 비경활 인구가 지속 증가하고 그 중 여성, 고령자, 고학력자의 비중과 육아/가사를 이유로 한 경우가 다수를 차지하는 등 **저출산·고령화 시대 인력운용 방향에 역행**

- 여전히 실업률 위주의 목표 관리로 인해 고용율, 비경활인구 등에 대한 정확한 실태 분석 및 지표 관리가 부재한 가운데 여성, 고령자 등에 대한 적극적인 노동시장 참여 정책의 성과가 미흡함을 반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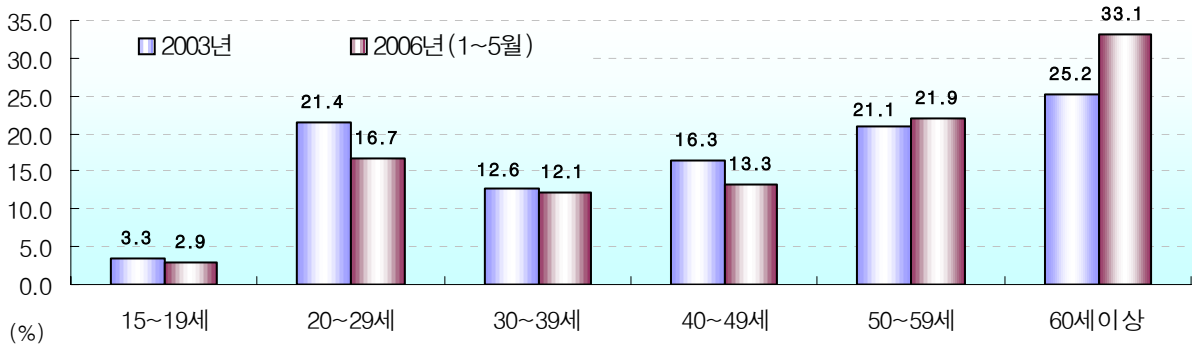
o "취업준비"나 "쉬었음"을 선택한 경우가 증가하고 1년 미만 전직 비경활 인구가 감소하는 것은

- 취업 시장의 어려움과 일본과 같은 니트족(NEET :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일하지 않고 일할 의지도 없는 청년 무직자)의 발생 우려가 있음을 보여줌

  * 2003년말 현재 일본의 15~34세의 니트족은 63만여명으로 10년전의 40만명에 비해 60% 증가

* 일부 언론에서 “쉬었음” 선택의 증가를 니트족의 증가로 직접 연결시키는 경우가 있으나 실제 “쉬었음”을 선택한 자의 연령별 분석을 보면 2,30대보다는 60대의 비중 증가가 가장 두드러짐 (생산가능인구의 고령화 추세)

< 활동상태 중 “쉬었음”의 연령별 비중 추이 >



3. 향후 대응 방향

o 비경활 증가 추세나 그 구성 내용이 바람직하지 않아 이에 대한 심층 분석 및 적극적인 대처 필요

- 비경활 인구를 축소하여 노동시장의 활력 및 참여율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고용율 등 지표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 방안 마련(실업률 위주에서 탈피)

- 노동시장 참여로의 이행 관점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자활사업 전반에 대한 평가 필요(사회복지 시스템 내에 취업노력 의무를 강화)

  * OECD 회원국의 경우 전체 비경활 인구의 2/3가 일할 의욕이 있다고 답변하고 장애급여 수급자 3명중 1명이 스스로 장애인이라 규정하지 않고 있음 (2006, OECD New Jobs Strategy)

o 노동부(한국노동연구원 공동)로 하여금 정밀 실태 분석 및 향후 대응 방안 마련

i) 경활 부가 조사 및 패널 조사를 통해 비경활 인구 증가의 요인과 향후 취업 경로(기간) 등을 추가 분석

ii) 구직의욕 고취를 위한 40대 이상 중고령자, 여성 대상 심층 상담 프로그램 개발 및 고용서비스 개선 추진 (비경활인구에 대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강화)

iii) 실업률 이외에 고용율 등 적극적 고용 지표 관리 방안 마련

o 아울러, 기획예산처 중심으로 진행중인 자활사업 평가에 근로의욕 고취, 노동시장 이행 효과 등에 대한 항목 조사 예정